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 - 팀레포트

14012717 김이레

14012718 민아영

14012721 정이진

우리는 많은 부분을 기계에 의존하고 기계는 많은 부분을 인간 대신 일을 해주고 있다. 기계와 인간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인간이 하기 힘든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기 힘든 곳에 가서 대신 데이터를 모아 주기도 한다. 게다가 인간보다 실수가 적고 빠르고 정확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간은 많은 부분을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거에서도 많은 양의 투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한다.하지만 기계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기계는 빠르고 정확하게 인간이 내린 명령을 수행한다’를 역이용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 ‘더 플랜’에 대해서 논해볼까 한다.

영화 ‘더 플랜’은 과연 개표 때 사용하는 기계가 믿을 만 했는지에 대해 다루는 영화이다.

투표를 하기 전엔 기계가 보안이 철저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 외부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검증된 사람만이 기계에 접근할 수 있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표는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했고 해킹 또한 가능했음을 보여주며 저번 대선의 결과　또한 상상 이상으로 이상한 결과가 나왔음을 보여주었다. 저번 대선 때 결과가 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모든 251개 투표소에서 미분류표 중 정상표로 다시 인정된 표가 1.5배 박근혜에게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계를 조작한 후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어떤 숫자를 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조작된 개표기계는 무조건 1.5 비율로 A와 B가 있으면 A를 찍도록 했다. 어떠한 숫자를 넣어도 A가 항상 1.5배 B보다 많게 나왔다.

모든 기계는 인간이 만들었고 소프트웨어 중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다. 영화에서도 투표기계를 만든 프로그래머도 조작하고 해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견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자 투표를 한다. 하지만 기계는 우리들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오로지 정해진 결과만 내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컴퓨터가 아무리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해도 미분류표와 분류된 표를 재확인하고 그 투표용지를 다시 재확인 할 때는 꼭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나라처럼 투표지를 옮기고 새는 과정을 모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이 영화의 주제 역시 ‘기계를 신뢰해서는 안된다’ 였다. 솔직히 기계는 도덕적 판단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성적 판단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러한 기계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허를 찌른 것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계를 믿지 못한다’라는 말보다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해커의 간단한 해킹만으로 네트워크도 연결이 되지 않는 기계를 해킹해 국민의 권리를 자유자재로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것을 하고 있는 기계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더 소름 끼쳤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써서라도 기계를 다루는 사람을 감시해야 하고 투표의 경우에는 개표 시에 개표기가 개표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통계를 내고 기계에 보조적인 힘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까지 말로만 들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꼈지만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선거에 사용된 투표기계가 이번 대선때에도 똑같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영화를 시청 함으로서 국민으로서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지난 5년동안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지만 쉬쉬하며 모른 척 해왔던 정부가 이번에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기계를 믿고 투표한 국민들에게 무슨 화를 당할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로지 기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는 믿음과 맹신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계는 결론적으로 인간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미래에도 궁극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인간보다 기계가 정확하고 신속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를 맹신한 결과가 이렇다. 현실적으로 기계로 인해 부정선거가 가능했다고 해서 기계를 안 믿고 인간이 손수 감시하며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계가 할 일은 기계가 해야할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계를 믿고 검사용지를 대충 검사한다 거나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선때도 똑같은 것을 쓸지 안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것 같다.